
第16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閉會中)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9年2月3日(水) 午前10時

場所 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文化觀光局所管월드컵蹴球大會推進事項報告의件
 2. 서울월드컵競技場建設工事推進現況報告의件
 3.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文化觀光局所管월드컵蹴球大會推進事項報告의件 ... 2面
 2. 서울월드컵競技場建設工事推進現況報告의件 2面
 3.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28面
-

(10時 32分 開議)

○委員長 金寬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 開議를 선언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金禹奭 文化觀光局長과 秦哲薰 建設團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文化觀光局과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업무보

고, 그리고 特委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文化觀光局所管월드컵蹴球大會推進事項報告의件
2. 서울월드컵競技場建設工事推進現況報告의件

○委員長 金寬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文化觀光局 소관 월드컵 蹴球大會 推進事項 報告의 件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월드컵 競技場建設工事 推進現況 報告의 件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먼저 金禹奭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文化觀光局長 金禹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文化觀光局에서 현재 준비중에 있거나 준비를 위해서 기획 또는 앞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2002年월드컵蹴球大會 推進事項 報告

(뒤에 실음)

.....

이상 저희들 文化觀光局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寬洙;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秦哲薰 建設團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주요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월드컵경기장의 완성된 모습과 우리 市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물 한 10분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린 후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서울월드컵競技場 建設工事 主要推進現況 報告

(뒤에 실음)

.....

○委員長 金寬洙; 秦哲薰 建設團長의 업무보고, 그리고 월드컵관련 영상물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과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源 委員.

○金玉源 委員; 수고가 많습니다. 金玉源 委員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이 2002년 5월에서 7월중 30일 내외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시기가 우리 지방자치 선거기간입니다. 6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월드컵 축구대회가 겹쳐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러한 행사를 서울시와 KBS와 중앙일보에서 주관해서 모집한다고 아까 文化觀光局長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서울시는 물론 해야지만 왜 하필이면 언론사가 많은데 KBS나 중앙일보만 선정했는가, 아니면 언론기관의 방송이나 신문사를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寬洙;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文化觀光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玉源 委員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시기가 지방자치 선거기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과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조직위원회간에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합시다만 저희들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자원봉사모집 교육에 있어서 특정 언론사하고의 공동추진보다는 전 언론매체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만 된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 동안 즉 중앙일보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중앙일보하고 일단 협력하기로 했고, 그 다음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 행사인 월드컵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간방송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여기에는 어떤 상업광고보다는 공익방송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모든 홍보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의를 해서 같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모집하고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는 이렇게 KBS하고 중앙일보하고 하되 다만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봉사활동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언론사가 특화되어 있는, 그 활동을 주로 해온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봉사 같으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그것을 희망한다면 같이 공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공동추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가는 분야별로 어떻게 각 언론사들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寬洙; 李松竹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松竹 委員; 李松竹 委員입니다.

團長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잔디에 대해서 면적이 605평으로, 실험장 352평에 관리부지 253평에다가 9종, 3종

의 난지형과 6종의 한지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종을 에버랜드에서 6종 한지형을 하고 3종은 주경기장 남측 대지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지 내에 3종을 하고 에버랜드에서 6종을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주경기장 남측대지 내라는 게 주경기장 부지로 혼동되게 돼 있습니다만 남측에 있는 별도의 경기장 이외의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종을 할 장소를 마련했는데 양잔디는 미리 과종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키우고 있고 들잔디는 바로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9종을, 에버랜드 것도 4월이면 다 이식하게 되고 들잔디는 3개 종류로 바로 과종을 하게 돼서 9개를 다 실험하게 됩니다.

○李松竹 委員; 그러면 용인 에버랜드에서 온실에도 지금 주경기장의 똑같은 토양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지반구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롤잔디라고 해서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지 않게 밑에 비닐을 깔니다. 비닐을 깔고 씨를 뿌리면 양탄자처럼 말수가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는 밑에 토양층 관계없이 토양은 바로 상암동 와서 그 토양으로 하고, 지금은 이식할 잔디만 롤잔디로 말 수 있게끔 그것만 키우고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키우고 있는 그 밑의 토양을 주경기장의 흙과 같은 것을.....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네, 채취실험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썼습니다.

○李松竹 委員; 지역의 온도라든가 그것도 감안해서 했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寬洙; 金奇德 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金奇德 委員; 金奇德 委員입니다.

오늘 두 局長님, 團長님이 나오셔서 월드컵지원단의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회는 6개월 정도 우리 지원특위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원특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아쉬운 것이 꽤 있습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많은 견문을 넓혀서 우리 지원특위에서 서울 월드컵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경제가 어렵다, 또 상황이 이렇다, 또 우리들이 외국을 견학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이래서 사실 생드니 같은 데 한번 가서 직접 견학을 해서 우리가 반영할 사안을 많이 반영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매우 유감스럽게 본위원회는 생각을 하고, 國會에서는 월드컵지원특위에서 해외 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議員은 그렇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동시에 피력을 하는 바입니다.

文化觀光局長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풀무골 복원 계획을 본위원회가 지난번에 建設委員會라든지 특위가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文化觀光局長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초청도 안하고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무골이라는 곳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월드컵 부지로 편입된 지역이고 그곳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떤 혈통을 이어오면서 그곳에서 엽전을 만들고 또 대장간 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취가 사실은 월드컵구장이 건설되면서 이것이 흔적을 잃게 됐습니다. 말로는 문화월드컵, 그곳에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곳,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그곳의 역사를 외부인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풀무골 복원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첫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아까 보고말씀에 월드컵 붐을 위해서 각 구마다 초등학교 1개단씩 축구단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붐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과연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팀 정도씩을 구성해서 25개 팀 정도가 돼서 무엇을 어떻게 축구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프랑스 월드컵대회, 수년 전부터 그곳에서는 각 학교마다 축구교실이 열리고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게임도 시키고 그래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언제부터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조기축구회라는 것이 서울시내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생활축구조기축구회를 월드컵 축구 조성에 부응하는 그런 축구팀으로 육성을 한다면 상당한 붐 조성이 미리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의 하나로서 범시민 축구대회, 서울시장기를 바로 열어서 그 팀들이 각 구마다 예선을 거쳐서 올라와서 본선을 서울시장기로 치를 수 있게 하는 이런 앞으로의 홍보의 사전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局長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文化觀光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奇德 委員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풀무골 복원계획, 제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 편성시에 실제 거기에 따른 고증과 설계,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존의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그런 활동에 이 업무를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에도 경상적인 그런 업무를 위한 예산만 확보돼 있지 이런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秦哲薰 團長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주경기장 주변에 여유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文化觀光局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유적이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방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麻浦區하고도 이용가능한 부지확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설계라든가 고증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월드컵 축구교실 운영은 저희들도 金委員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제약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은 각 구장에서, 이 개념은 그렇습니다, 브라질 같은 데 동네단위에 어떤 축구클럽이 있어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그런 축구 꿈나무들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젊은 축구인들을 육성해 나가는 하나의 산실로 삼아보자 하는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제약 때문에 지금 金奇德委員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축구교실에 대한 예산지원과 또 시장기배 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봄을 조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이런 시장기배 축구대회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각 마을에 있는 조기축구회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경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기회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내년 봄부터라도 조기축구교실 축구대항경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월드컵조직위원회측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서울시만 월드컵을 하는 게 아니고 10개 도시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10대 도시 별로 어떤 축구시합 같은 것도 월드컵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저희들이 아울러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寬洙; 제가 金奇德 委員 질의하는 데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사실 文化觀光局長이 특위에 한참 전에도 여러 번 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그리고 월드컵대회에 대한 계획을 한번쯤은 여러 번 점검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다행히 우리가 특위를 개설하면서 文化觀光局長에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파리 주재관한테 생드니 월드컵의 성공적 요인이나 앞으로 개최되는 서울 월드컵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보고를 듣는 그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秦哲薰 建設團長님도 계시지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회를 열기 위한 장입니다. 정말 만들어 놓고 월드컵이 실패한다고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보고서 낸 것을 봤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金奇德 委員이 아까 말씀했지만 예를 들면 시장기 쟁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더 먼저 나오는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런 발의를 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수용하는, 아직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우리 建設團長님의 임무, 또 주경기장 건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설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아까 우리 金玉源 委員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일간지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데 주었다, 그것 아닙니다. 전체 일간지가 다 나서서 월드컵을 홍보해야 하는 그런 능동적, 그런 차원의 우리 文化觀光局의 소관일는지 다른 부서가 소관일지는 모르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월드컵이 성공할 수 있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국가경제난 속에서 앞으로 3년 반입니까, 4년 남은 월드컵이 만약 실패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것이 국가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월드컵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요만큼의 오차라도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응비하는 것이 아니고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文化觀光局이 가장 주무부서 같아요.

문화월드컵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항상 상암동 서울월드컵이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 좋은 의견입니다.

축구교실 1구 1학교, 그런데 생드니월드컵의 파리주재관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 중에 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나라가 8강 정도도 못 들어간다면 월드컵 실패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서울에서만이라도 아까 金奇德 委員이 질의하셔서 얼른 생각나는 것인데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이면 앞으로 4년,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왕성한 체력을 발휘해서 월드컵에 주역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획 자체도 한번쯤은 우리 월드컵특위를 하는데 계획으로 가지고 나오면 국민학교는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막연한 안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내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그러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반대할 위원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 행사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나름대로 민족적이며 역사적인 사업인데 예산을 왜 거기에 배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극적인 자세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李善宰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奇德 委員; 제가 아까 답변에 대한 결론을 안 냈는데요.

○委員長 金寬洙;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로 질의하세요.

○金奇德 委員;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金禹奭 觀光局長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런 답변을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께서 그런 의지와 노력이 계시다면 아까 풀무골 복원계획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또 그렇게 건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그 올림픽경기장만 들어섰고 그 외적으로 경기 외에는 활용이 안 되고, 또 동대문구장도 구장의 구실만 하지 아무 활용가치가 없는데 그런 과거의 사례로 우리 서울월드컵 주경기장만큼은 앞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또 시민이 늘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 지역에 가면 옆에 영화관에서 영화관람도 하고 그러한 역사관도 둘러볼 수 있는 다목적기능의 경기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또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셔서 적극 건립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寬洙; 李善宰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이대로 잘 되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구경기가 열리면 국내외 합쳐서 약 170만명, 외국관광객이 50만명,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은 600억만명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유발효과도 한 8조원쯤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여기 세우신 계획들이 이대로 그냥 죽 간다 그러더라도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시기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정착되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금년부터라도 그때 시행해 보려고 하는 모든 문화행사들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검토하고 관광상품으로서의 값어치가 정말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토없이 그냥 있다가 2002년에 가서 해본다 그래봤자 보고 감동할 사람이 나는 별로 없을 것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하시고 있는 행사들도 그 전에 하던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것이 외국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치고, 또 우리 이 문화가 이대로 죽 가도 괜찮은지, 문화상품으로서의 값어치를 느끼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최 구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마포에서 하는 것이고 뭐 10개 지역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최 구가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관광객이 오면 다른 데도 가보지만

월드컵을 보려고 하면 우선 거기 가게 되는데 그 구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7대 분야를 설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예를 들면 질서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교통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뭘 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것과 관계 돼서 그러느냐 하면 자원봉사도 얘기를 들으면 50만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시켜서만 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자원봉사자들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서 질서와 봉사를 올해부터 시작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정착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정해서 하나 하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문화행사, 기존행사, 새로 개발하는 행사,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88년 올림픽때에 사직대제를 복원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88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사실 관심을 안 가져서 종로구청이 1년에 돈 몇 백만원씩 내서 또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지금 文化觀光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민의 날에도 그 행사를 서울시민의 날 행사속에 집어넣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성공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종묘사직 그러면 그것이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직대제라고 하는 것이 국태민안, 그리고 풍요 그런 것을 기원하는 것이었고 국왕이 나와서 직접 행사를 치르던,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국민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팽개쳐져서 금년에는 아주 그 자체 행사를 못할 뻔 했는데 그래도 또 여러 양반들이 애를 써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지금 개발하는 문화 행사 속에 넣으셔서 계속 발전시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하나 여쭙어 보겠는데요.

건설홍보관을 확대운영하실 예정이라고 그러고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고 아, 이렇게 건설되는구나, 그리고 가 보시는 분은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홍보요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것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文化觀光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李善宰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나 첫번째 질문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암 월드컵구장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 하면 재원은 어떻게 부담하느냐,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좀 다소 준비가 늦어졌고, 또 준비했던 기간이 길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시된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유인물에 보임도 어렵기 때문에 기본구상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대충 요약해서 압축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다고 소문이 난 일본과 경쟁하면서 협조하는 그런 월드컵이고, 또 문화재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자원봉사 이런 체제에서도 경쟁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우선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는 저희들도 다름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이 임명이 되고 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월드컵준비위원회, 그리고 실무기획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보다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 구가 담당할 역할 이것은 지난번 마포구에서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자치구라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울은 하나의 전체적인 관광지고 문화유적지지 어떤 마포구 하나만 딱 달랑 떼어서 그것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속에서 마포구 안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麻浦區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자원봉사는 지금 저희들 계획도 그렇습니다. 3월에 1차 모집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교육시간이 다르기는 합시다만 교육이 끝나면 바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꼭 2002년 월드컵에 임박해서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자원봉사를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교육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역할을 부여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직대제 이 문제는 저도 평소에 이것을 정례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李善宰 委員님이 제안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委員長님이 소극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진을 하는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기간이 그렇게 많지 못했고 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오늘 여기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들은 좀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李善宰 委員님께서 건설홍보관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규모가 57평이기 때문에 수용인원은 100명입니다. 좌석은 60석이 있는데 여유석이 있기 때문에 100명 정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가 아직 덜 됐는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蘭芝島管理事業所에서 환경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도 견학하는 코스가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9,000명이 다녀갔는데 거기에 난지도를 들렀다가 우리 경기장으로 오는 코스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2월 5일에 서울市長님께서 상황실을 방문하고 그때 서울시 축구협회, 또 생활체육협의회, 또 조기축구회 해서 축구관계자들과 만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을 계기로 이렇게 개관됐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절차는 월드컵건설단에 신청하면, 다만 서울시 청버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동차량은 이용자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寬洙; 네, 李松竹 委員長님.

○李松竹 委員; 질의와 더불어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예절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연등제라든가 어가행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비전문가이지만 정말 전통을 전공하신 분들이 거기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절을 할 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만 절이 되는데 왼손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예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큰 행사에 그 손의 위치라든가 오른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왼다리를 세운다든가 정말 그런 꼴불견의 장면이 많은 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시고, 예절전문가를 들어서 이런 행사의 앞뒤를 점검받는 것이 우리 전통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건의사항과 더불어, 여기 6페이지에 관광호텔 부족분 대책에 대해서 외국인 이용 중.저가 숙박업소 연차별 확충

이라고 했는데, 대책에서 보면 지원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보수비와 용자를 알선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저가 숙박업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이 있으며, 또 거기에 지원을 했을 때 보수비와 용자알선, 부담금 감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주변에 홍보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團長님에게 14쪽에 99년 2월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해서 환경정비 안전 등 협의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까 희망의 숲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에, 이미 희망의 숲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로고까지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전혀 이런 일을 상의한 일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그런 절충이 없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文化觀光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전통행사시 예절전문가의 자문을 꼭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숙박시설 확보대책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련보기에 의해서 자기가 이런 것을 신청하든가 신청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지금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20% 감면해주고, 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전체 개.보수 비용의 20%에서 최고 50%까지를 연리 6%의 低利로 용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자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李松竹 委員; 알겠습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李松竹 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는 서울시 계획이고 경기도 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이 무척 삭막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희망의 숲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로 초입 위치로 위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경기도이고 어디까지가 서울시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은 확정돼 있는데 가능하면 경기도 구간까지도 희망의 숲을 연결해서 한 3km 정도만 하면 가로변에 울창한 수림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은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우리가 경기도와 2월에 협의할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3km 구간이 행주대교에서, 그러니까 일산에서 서울로 오는, 자유로로 볼 때는 행주대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가 3km 정도 됩니다. 그것도 희망의 숲을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寬洙; 네, 金永俊 委員님.

○金永俊 委員; 金禹奭 文化觀光局長님, 97년도에 財政企劃官으로 계셨죠?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그렇습니다.

○金永俊 委員; 97년 8월경 財政企劃官으로 계실 때 상암지구 본위원이 연설하는 것 들었죠?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네.

○金永俊 委員; 월드컵이 市議員 재선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전체를 여기 매달리다시피 하는 議員이 본위원이고 노력을 합니다. 金局長은 난지도에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올라갔습니까?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제가 전에 淸掃局長을 했기 때문에 난지도에는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金永俊 委員; 그러면 월드컵 시작한 후에 몇 번 올라가 봤습니까?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월드컵 준비기간중이에요?

○金永俊 委員; 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월드컵경기장 건설기간중에는 난지도 위에 못 올라가 봤습니다.

○金永俊 委員; 거기 올라가 보세요. 거기 올라가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한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우리 金局長을 비롯한 두 분 局長들, 그리고 다섯 분의 書記官님들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特委이지만 99년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8년은 사랑하는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99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시다만 98년 어려울 때 두 局長님을 위시한 여기 전 간부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라기 보다는 두 분 다 이 과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우리 秦局長이나 金局長께서 두 분은 한 번 소신을 가졌다면, 옳다고 판단이 든다면 누구의 얘기도 필요없이 그야말로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누차 얘기했는데 이 사업은 IMF 환란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운이 달려있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제가 조금 늦게 와서 文化觀光局長 보고말씀을 못 들었는데 잠깐 여쭙겠습니다. 문화월드컵기획단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만들 계획입니다.

○金永俊 委員; 그런데 조금 전 보고말씀에 민간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간전문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수십 대 1, 97년의 경우 여기 7급 공무원출신이 있을 거예요. 고시공무원도 계시고요. 200 대 1, 150 대 1을 뚫고 들어온 이 공무원들 박사입니다, 월급도 적게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민간인한테 전부 다 일임하지 마시고 공무원 20년, 10년 했으면 박사죠. 그런 정도로 공무원들이 잘 하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월드컵 그러는데 월드컵조직위원장 박세직, 올림픽조직위원장 박세직씨, 대한체육회장 조상호씨 등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상암 서울 월드컵은 서울시 천백만의 입맛에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편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상암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만들어진 동기는 전 정부, 지금 문화국 산하의 공무원들은 제 얘기를 처음 들을 것입니다.

전 정부 임명직 시장 당시에 강남방면 위주로 개발했기 때문에 낙후된 서북부의 건설을 위해서 상암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면 자원봉사, 아니면 거기 경비를 한다거나 그 서북부지역, 마포는 물론이고 은평, 서대문, 종로, 영등포라도 여기 사

람들이 만일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애착을 가질 것이다, 이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월드컵기획단이 참으로 할 일들이 많겠는데 만약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시장님께 정말로 소신있는 공무원을 천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 이 거대한 사업을 작년에 고생했고 금년에 공무원이 또 고생했지만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절대로 굽히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소신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寬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文化觀光局長입니다.

金永俊 委員님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용기백배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한 가지 문화월드컵준비기획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월드컵준비기획단은 공무원 조직이고요. 조직이 되면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松竹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조경기장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석유 저장탱크가 만약에 이것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방비책도 생각을 세워놨는지 좀 묻고 싶네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경기장부지 서측편에 석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한 31만배럴이라고, 그 석유량이 서울

시민의 하루 사용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産業資源部하고 石油開發公社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구리하고 또 용인에도 한 300만배럴짜리 큰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통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이설비용이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고, 石油開發公社는 장기적으로는 상암택지개발사업 하면서 아파트가 1만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적격 시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투자가 부담이 많아서 지금 결정을 못 보고 있는데 石油開發公社는 대회 때까지 이전이 안 되게 되면 석유는 빼가겠다, 그래서 위험시설로서는 유지 안 되고 대회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대회 이후에도 앞으로 50년 동안 새서울타운계획으로 신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라도 옮겨 달라는 입장입니다. 대회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寬洙; 金奇德 委員님.

○金奇德委員 秦哲薰; 團長께 질의만 하고 답변은 2월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金永俊 委員님께서 균형적인 도시개발의 문제점, 강남이 그렇게 발전이 되는데 우리 서북권 지역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번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힘입어서 정말 그쪽이 최소한 중간은 가는 지역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마포구나 은평구 주민들은 정말 기대에 부풀어있다, 서대문구나 3개 구는. 우리가 축구경기장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무슨 영화관람, 오페라 하나를 보러 가려고 해도 지하철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고 남부터미널에 갔다가 거기서 또 마을버

스 타고 예술의 전당을 갑니다. 1시간짜리 보려고 갔다가 하루 오후 한나절이 다 걸려 버려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문화행사가 연중 열리는 곳이 된다는 그런 기대에 그 지역주민들은 부풀어 있다 하는 것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한번 멋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산역이 없어짐으로써 성산역이 증산로 길이 폐쇄되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시흥아파트 옆쪽으로 6m 도로가 20m로 확장되는 캔틸레버 설치의 도로확장 계획이 절대로 추진이 안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에 따르는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정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하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송전탑 지하 이설계획이 7기 정도를 협의하고 있다는 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무총리실, 또 산업자원부하고 진행이 돼서 7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12월 1일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상암동 난지도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한 20여 년간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것은 각 신문사의 사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장장하게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秦哲薰 團長께서도 시장을 대신해서 그때 분명히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1/100, 1/1,000이라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IMF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공공근로 하나 따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기에 인근 지역주민에게 노무인력, 일반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삼성에

권유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상임위원회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源 委員; 金玉源 委員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서울~평양간 문화예술교류 협력추진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나 성공적 여부관계는 나중에 서면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秦哲薰 團長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평양과 우리 서울간에 서로 문화교류나 스포츠 교류를 할 경우에 월드컵 주경기장에 이러한 남북간에 교류하는 공동의 장을 건의해서 만들 수 있는지 본위원회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에게 관람객이 약 170만명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외국인은 50만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예상되는 인원수는 어디에서 근거를 했고, 또 50만명 이 큰 세계적인 축제를 치르는데 관광객 50만명 유치해서 우리 나라가 되겠느냐, 본위원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객 100만명, 200만명 이상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寬洙; 답변은 서류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金禹奭 文化觀光局長과 秦哲薰 建設團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전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16分 會議中止)

(12時 1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寬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3.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金寬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개시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어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서 중책을 벗게 되는 흥가분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 섭섭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작년 7월 16일 제1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이 결의되어 작년 8월 5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이 선임된 이래 오늘까지 다섯 차례 회의와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혹시 수정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源 委員; 오늘 제가 건의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빠졌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이 아까 5월에서 7월중에 30일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선거가 6월에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날짜를 조정하는 것을 건의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보고서에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寬洙; 좋으시다면 우리金玉源 委員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 위원회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專門委員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추가로 보고서 작성할 때 그 의견을 삽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초 원안에서金玉源委員님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해 주실 것을 수정제의 합니다. 그러면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金玉源 委員님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本 委員長이 수정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 活動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本 委員長이 제의한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

(뒤에 실음)
.....

○委員長 金寬洙;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특위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끝났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각자 소속 상임위원으로서의 주어진 임무 외에 특위 위원을 겸임하시어 중첩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진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23分 散會)

○出席委員

金寬洙 金奇德 李松竹 金永俊

金玉源 柳基洪 李善宰

○專門委員

朴勇勳

○出席公務員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